2026. Autumn **Vol.114**

원정메아리



총장님과 함께
제12대 조우석 총장 취임

우리 학과 선배님
대한항공 최정근 선배

인하에서 취업해
경영비서학과 이희정 교수님

브이로그
2026 글로벌 창업인사이트캠프

PPY SONG

INHA

LOVE

2 목차 면접을 부탁해
4 Now! INHA 오늘의 떨림을 내일의 자신감으로
6 총장님과 함께 인하공업전문대학 제12대 총장 조우석 박사
10 우리 학과 선배님 항공기계공학과 23학번 최정근 선배
14 인하랑 특파원 학교생활 꿀템
16 인하에서 취업해 경영비서학과 이희정 교수님
20 인하에게 묻다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
22 B777 항공실습관 B777 OX퀴즈
24 인하 브이로그 2026 글로벌 창업인사이트캠프
26 공모전의 강자들 캡스톤디자인 대학생 경진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28 해양정화봉사 스포츠헬스케어학과 박민지, 이진원
32 나의 학과 찾기 도전! 재료공학과
34 대학뉴스 새로운 학교 소식
38 응모이벤트 말칸 채우기
39 동문광고 인하공전 동문을 찾습니다









성공면접 프로그램
면접을 부탁해!



발행일 2026년 10월 15일 **발행처** 인하공업전문대학
주소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전화 032-870-2452
디자인 (주) 도시로온사막여우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의 허락 없이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하공전, 면접을 부탁해

오늘의 떨림을 내일의 자신감으로

면접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실전 경험과 자신감을 선물한 특별한 이틀을 소개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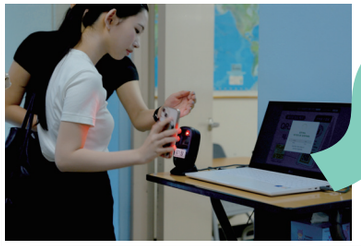


















실전 같은 면접을 경험하고, 대학 생활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열렸어.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하공전에서 2027학년도 예비 신입생을 위한 모의면접 프로그램 「면접을 부탁해」가 성황리에 진행됐지.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무려 2,000여 명의 수험생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어. 참가자들은 실제 입학전형과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스스로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면접 태도와 답변 방법 등 실질적인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어.

면접이 끝난 뒤에는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도 이어졌어. 수험생들은 학과 선택과 대학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지. 또한 B777 항공실습관을 비롯한 첨단 교육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인하공전의 교육 환경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어.

참가자들은 실전 면접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대학의 다양한 시설을 직접 확인하며 진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어. 미래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면접을 부탁해」. 이번 경험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응원할게!

성공면접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만나세요

2026.07. ~ 현재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2025.09. ~ 현재
UNGGIM-AP co-Chair
1996.03. ~ 1997.02.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997.03. ~ 2026.07.
인하대학교 교수
2009.08. ~ 2011.07.
인하공학교육혁신센터장
2012.04. ~ 2014.08.
인하대학교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2014.09. ~ 2020.01.
IUT(Inha University in Tashkent) 수석/대외 부총장
2022.10. ~ 2025.1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인하공업전문대학 제12대 총장

조우석 총장님을 만나다

인하공업전문대학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장 조우석입니다.

새로운 배움과 도전으로 캠퍼스가 활기를 더하는 가을, 『원점메아리』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대학의 오늘을 만들어 가는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 변함없는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장으로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온 학생은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얼마나 더 넓게 그릴 수 있을까.” 우리 대학의 교육에 기대를 품고 찾아온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입학할 때보다 더 큰 자신감으로 세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하공전은 산업 현장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인재를 길러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그 신뢰에는 학생을 향한 교수님의 열정, 대학을 든든히 뒷받침해 온 직원 여러분의 정성,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 온 동문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교육과 대학 생활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일하는 방식은 물론, 직업에 필요한 역량도 바꾸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본기 위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람과 협력하며, 새로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지켜 온 현장 중심 교육에 이러한 역량을 더해, 학생들이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강점과 신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든든한 토대입니다.

저는 그 변화가 학생 한 사람에 대한 세심한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도전을 해 보고 싶은지 묻고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수업에서 시작된 관심이 상담과 실습, 진로와 취업으로 이어질 때 학생은 자신의 다음 걸음을 더 분명하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필요한 기회를 연결하는, 살아 움직이는 대학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시야도 더 넓히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새로운 과제를 교실로 가져오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며,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배우고 협력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인하공전에서의 배움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점메아리』에는 우리 대학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학생의 작은 성취, 더 좋은 수업을 위한 고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학을 지탱하는 노력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다음 도전의 계기가 됩니다. 이 지면이 서로의 수고를 알아보고, 우리 대학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학생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교직원들은 함께 이룬 변화에서 보람을 느끼며, 동문들은 모교의 발걸음에 자부심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필요한 결정을 책임 있게 내리며,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조우석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대학.
그리고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대학.
여기에 AI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까지
더해진다면 어떤 변화가 펼쳐질까?
인하랑이 직접 조우석 총장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총장님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12대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으로 취임한 조우석입니다. 1997년에 인하대학교에 부임했으니 어느덧 30년 가까이 교수로 학생들과 함께해 왔네요. 인하공전은 예전부터 굉장히 친숙한 학교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오갈 일이 많았거든요.

이곳에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학생들이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긴 시간 인하와 함께해 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돌아보면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학생들입니다. 신입생으로 처음 만났던 학생이 졸업하고, 또 연구실에 들어와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라는 직업의 보람입니다.

총장직이 결정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는 인하공전을 위해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원하는 미래를 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학교는 정답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총장이 된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경험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하공전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인하공전의 가장 큰 강점은 산업 현장과 매우 가깝게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천은 제조업과 물류, 항공,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하공전은 학생들이 현장과 연결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 부분이 인하공전만의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문대학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AI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이 전공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AI 활용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업무와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AI가 목표는 아니지만,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인 건 확실하니까요.

재임 기간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인하공전이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이 끌고 가는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는 조직 말이죠. 누군가 자리를 떠나더라도 조직은 계속 성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교육은 물론이고 행정과 조직 문화까지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지만, 그 변화들이 하나씩 모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기나 취미, 또는 최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있을까요?

가장 오래 즐겨온 취미는 테니스입니다. 벌써 40년 가까이 라켓을 잡고 있네요. 인하대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 대표로 전국 교수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적이 아주 뛰어나진 않았지만요.(웃음)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느낀 건, 재능보다 지속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공부와 취업 준비도 중요하지만, 평생 즐길 수 있는 운동 하나쯤은 꼭 만들어 두라고요. 건강은 결국 가장 오래 함께 가야 할 자산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인하공전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세요. 저는 젊은 시절,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막상 가 보니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니더군요.

다만 뛰어난 사람들은 늘 배우고, 관찰하고, 스스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든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잘하는 사람의 방식을 살펴보세요.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하며 돕겠습니다.

오리 혈과 선배님

꿈의 엔진을 가동하다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 찾아오는 기회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
오늘의 도전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최정근 선배를 만나보자.



선배님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공기계공학과 23학번 최정근입니다. 현재 대한항공 엔진기술훈련과정 3기로 부천에 있는 대한항공 엔진공장 금속반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어요. 금속반은 엔진 점검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된 부품을 용접이나 열처리, 열 코팅 같은 방법으로 수리하는 부서입니다. 처음 현장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선배님들께 배우며 엔진 부품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대한항공은 어떤 회사인가요? 조직 문화 및 회사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대한항공은 국내외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입니다. 항공운송뿐 아니라 항공기 정비와 개조,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작업 속도보다 정확성을 먼저 생각하고, 작업 전후 확인을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또 혼자 판단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어요. 선배님들도 질문을 정말 친절하게 받아주셔서 모르는 것을 부담없이 물어보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이 복지제도나 직원 항공권 혜택을 떠올리는데요. 저는 현장을 경험하면서 대한항공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정비 기술력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엔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인상적이었어요. 금속반에서 부품을 직접 복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항공이 왜 높은 정비 경쟁력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선배님의 일과가 궁금합니다.

대한항공 엔진기술 교육과정은 크게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론 과정에서는 엔진과 정비 일반, 항공기 기체계통 및 전자장비 등을 배우는데 하루 8교시 수업이 진행됩니다. 3주마다 평가가 있어서 학생 때처럼 시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기 과정에서는 실제 정비 업무에 필요한 매뉴얼 활용법과 기본 기술을 익힙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은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는 일정으로, 엔진 공장의 여러 부서 중 한 곳에 배치돼 선배님들의 작업을 직접 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역량이나 태도는 무엇인가요?

꼼꼼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기 정비는 아주 작은 부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작은 실수가 결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작업 전후로 반드시 내용을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정비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일 것입니다.

대학 시절 배웠던 전공과목 중 실무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목은 무엇인가요?

현재 엔진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 가스터빈 엔진 과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은 1학년 때 들었던 항공기 기체 정비 및 수리 실습입니다. 기술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기를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었거든요.

나사를 조이는 방향부터 공구 사용 시 주의 사항, 작업할 때 힘을 쓰는 방법까지 중요한 기초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배웠던 안전결선 작업은 지금도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대학 생활이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제 목표는 딱 하나, 빨리 졸업해서 취업하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있는 편이다 보니 대학 생활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공동아리 활동도 하고, 주짓수 동아리에서는 사범 겸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학회장으로도 활동했고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항공기 기체 실습실 근로장학생 활동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후배들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대학 생활에서 가장 큰 수확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후배들,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생각보다 훨씬 풍성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점과 역량을 함께 관리할 수 있었던 선배님만의 공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비법보다는 반복이 가장 큰 공부법이었어요. 외워질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사무행정 업무를 했는데, 그때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학한 뒤에는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예전 직장으로 돌아간 제 모습을 상상하면, 신기하게도 저절로 책상 앞에 앉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를 움직인 건 공부 기술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학 중 참여했던 활동 가운데 실제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먼저 토익캠프를 꼽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어학 성적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캠프를 통해 점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입학 전과 비교하면 약 250점 정도 향상됐고,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입니다. 자기소개서 첨삭부터 기업별 면접 준비, PPT 면접 대응까지 세세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해하던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덕분에 대한항공 기술교육원뿐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경험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스토리텔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활동을 나열하는 것보다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잘했던 경험뿐 아니라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와 군 생활, 대학 생활이 모두 항공 분야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경험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결국 자기소개서는 스펙보다 '나'를 설명하는 글일테니까요.

면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대본을 통째로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외운 내용을 잊어버리면 더 당황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정도만 정리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 제 경험을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두 번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면접관이 궁금해할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설명할지 미리 고민했습니다. 결국 면접에서는 어떤 정답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자신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항공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은, 바로 지금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부든, 동아리 활동이든, 친구들과의 추억이든 무엇이든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신나게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는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경험은 분명 자신의 자산이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경험이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항공기계공학과 후배들은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믿고 마음껏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DEPT. OF AERONAUTICAL & MECHANICAL ENGINEERING

띵동~

나만의 꿀템을 알려줄게!

대학생활도 장비빨?! 연강을 버티는 치트키, 갑작스러운 얼룩을 해결하는 비밀 무기, 바쁜 하루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간편식까지! 인하랑 특파원 다빈, 태은, 민서, 준완의 가방 속에 숨어 있는 꿀템을 소개할게.

영상으로 만나세요

산업디자인학과 신다빈

농축가글은 작은 한 통으로 일반 가글 100개 분량을 사용할 수 있어 휴대하기 정말 편해요. **브이캔디**는 맛도 좋고 붓기 관리에도 도움이 돼서 자주 챙겨 먹는 필수템입니다!





항공운항과 강태운

싹스틱은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울 때, **헤어왁스**는 잔머리를 정리할 때 꼭 필요해요. **파일케이스**는 수업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학과 친구들도 많이 사용하지요.



항공운항과 박민서

수업 때문에 끼니를 거를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이면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요. 바쁜 대학 생활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얼박사는 연강과 시험 기간에 집중력을 높여주는 비밀 무기죠. **섬유탈취제**로 깔끔함을 유지하고, **이클립스**와 **구강 스프레이**로 입안을 상쾌하게 하면 오늘도 무적입니다!

반도체기계정비학과 박준완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든든한 조력자

경영비서학과 이희정 교수님

안녕? 난 경영비서학과 25학번 김채영이야.
우리 학과에서는 고민이 생기면 찾아가는 곳이 있어.
취업을 넘어 성장과 가능성을 함께 찾아주시는
이희정 교수님의 연구실, 나와 함께 가볼래?

교수님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늘 든든하게 도와주시는 교수님과 이렇게 함께 대화하게 되어 기뻐요. 아직 교수님을 잘 모르는 후배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영비서학과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희정 교수예요. 비서정보학을 전공한 뒤 HL그룹과 한국오라클에서 근무했고, 벌써 9년째 학생들을 만나고 있네요.

학과에서는 AI 및 스마트앱 활용, 서비스전략과 마인드, 커리어 기획·코칭 과목을 맡고 있고 취업 지도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자기 강점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 강점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지요.

경영비서학과에 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졸업한 선배들은 주로 어디로 취업하나요?

우리 학생들은 주로 기업의 비서나 경영지원 직무로 진출해요. 비서라고 하면 단순히 누군가를 보조하는 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요. 총무나 인사, 회계지원, 고객지원 분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항공·물류부터 금융, IT, 병원 행정, 공공기관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 AI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정보를 정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지요.

저희 수업 중에서 취업 준비에 특히 도움이 되는 수업이나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비서실무와 비서커뮤니케이션 실습을 먼저 꼽고 싶어요. 실제 비서 업무 환경을 갖춘 실습실에서 문서 작성이나 일정 조율, 방문객 응대 등을 직접 해보면서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거든요.

여기에 사무자동화, 비즈니스 영어, 회계 기초 같은 과목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AI 관련 수업을 통해 디지털 역량도 키우고 있어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빠르게 반영하고 이론과 실습으로 탄탄하게 익힌다는 점이 우리 학과의 큰 장점이지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늘 '자기 이해가 먼저'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보다,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성장하는 사람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또 경험을 기록하는 습관도 강조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수업에서 했던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태도지요. 경영지원 직무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직무인 만큼 성실함과 배려가 무엇보다 큰 경쟁력이 되니까요.











학생마다 가진 강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잖아요.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적성이나 강점을 어떻게 발견하시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학생들을 오래 지켜보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연구실에서 하는 상담도 중요하지만, 평소 모습에서 더 많은 걸 발견하거든요. 조별 과제에서 자연스럽게 일정을 챙기는 학생, 처음 만난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학생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강점이 있으니까요.

상담할 때는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나 몰입했던 일을 물어봐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학생 스스로도 몰랐던 강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취업 상담 중에 학생들이 "내세울 만한 경험이 없어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아무 경험이 없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경험을 직무와 어떻게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학생들과 대학 생활을 하나씩 돌아봐요. 학과 행사에서 맡았던 역할이나 실습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아르바이트에서 고객을 응대한 일도 모두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 안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아주는 게 제가 할 일이지요.

교수님께 선배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말 오래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선배가 있을까요?

1학년 때 무척 조용했던 학생 한 명이 기억에 남아요. 발표는 잘 하진 않았지만, 비서가 되겠다는 꿈만큼은 아주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자격증, 어학 공부, 비교과 활동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꾸준히 점검했지요. 방학이 지날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결국 졸업할 때는 높은 어학 성적과 자신감을 갖추고 국내 굴지의 플랫폼 기업 비서직에 합격했어요.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며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있다니, 참 뿌듯하지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이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예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물론 기쁘지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 큰 보람을 느껴요. 승진했다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참 좋고, 연구실에 들러 안부를 전하는 졸업생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특히 "교수님, 저희 팀에 추천할 만한 후배가 있을까요?"라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현장에서 학생들이 신뢰를 얻고 있구나 싶어 정말 뿌듯해요.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뭘 먼저 준비해야 할지, 어떤 경험이 필요할지 고민이에요. 꼭 준비해 두면 좋은 자격증이나 경험이 있을까요?

비서 자격증이나 컴퓨터활용능력, MOS, ITQ 같은 사무 관련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준비해 두면 좋아요. 여기에 회계나 ERP 관련 자격증, 토익이나 토익스피킹·OPIc 같은 어학 성적까지 갖추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요.

하지만 자격증만 많이 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현장 실습이에요. 실제 조직에서 일해 본 경험은 면접에서도 자기만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학과 활동이나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경험도 훌륭한 취업 자산이 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려요.

결과를 모르는 채로 걸어가는 시간은 불안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나무는 바람과 비에 세차게 흔들려야 양분이 가지 끝까지 순환하고, 비로소 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불안한 시간을 성실하게 지나온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확인해왔어요.

여러분은 이미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힘들 때는 혼자 끌어안지 말고, 교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구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

가장 큰 힘이 되는 조언은 나에게서 온다.
나는 누구보다 나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던
신입생 시절의 자신에게 건네고 싶은 한 마디.



재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5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상품권(각 2만원)을 드립니다.
인하공전 입학 후,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나요? | 시간을 돌려서, 신입생이 된 나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준다면?

건설환경공학과 **채승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늘 근로가 있었어요. 다른 활동이 뭔가를 해내는 자리였다면, 근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이야기 나누는, 조용하지만 꾸준한 시간이었어요. 밖에서 지치고 온 날에도 근로하면서 선생님과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다시 채워지곤 했어요.
다른 활동들이 저를 다양하게 만들어줬다면, 근로하면서 보낸 시간은 그 모든 걸 버틸 수 있게 해준 바탕이었어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다고,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학하고 나서 저는 근로와 학생회 행사부, 원점 동아리, 인하공전 리포터, 창업동아리에 실습까지, 이것저것 다 손대면서 지냈거든요. 당시에는 뭐든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다 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어떤 건 정신없이 지나가서 제대로 기억도 안 나고, 어떤 건 왜 했는지도 흐릿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생인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를 할 때 그 안에서 뭘 배웠는지,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그때 짧게라도 정리해두라는 거예요. 체육대회 우승한 순간의 기분, 실습 나가서 처음 낯설었던 감정, 근로하면서 선생님과 나눴던 이야기들 —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지금 돌아볼 때 훨씬 더 선명하게,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바쁘게 사는 건 이미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 바쁨 속에서 나를 놓치지 말라는 게 제가 그때의 저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에요.

디지털마케팅공학과 **조희우**

'학교 안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입학했습니다. 때로는 바쁘고 벅차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저를 한 층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도 지금처럼 뜨겁고 열정적으로 부딪히며 가장 빛나는 추억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모두 짧은 순간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해보자!"
처음에는 다양한 활동에 지원하는 것조차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 망설여졌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면접관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저에겐 큰 부담이자 떨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어떻게든 용기를 내어 도전했기에, 근로장학생부터 홍보대사, 그리고 몽골 해외봉사까지 제 인생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값진 인연들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할 때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일단 부딪혀 보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재료공학과 **황석현**

입학하고 매순간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전공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며 꾸준히 실무 역량을 다져나갔습니다. 학업 외적으로도 학과 학생회 활동과 학교 학생홍보대사 활동을 병행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방학 기간에는 해외 봉사활동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저 자신의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혔던 지난 시간들 덕분에, 스펙 쌓기를 넘어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인 저에게는, 더 열심히 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새내기 시절에는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정작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 때는 제대로 놀며 평생 함께할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쌓고, 공부할 때는 전공에 몰두하며 나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마음을 다해 누군가와 열정적으로 소통하고 사랑해보는 그 모든 경험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한층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 역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 울고 웃으며 대학 생활을 100% 누린다면, 훗날 돌아봤을 때 그 어떤 순간도 아쉬움으로 남지 않는 눈부신 청춘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호텔경영학과 **원채원**

꿈만 같았던 학교에 입학해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학업과 학과 내 학생회 및 학교 홍보대사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입학하자마자 확실하게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꿈을 향해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입학 후의 시간은 단순히 학교를 다닌 것을 넘어, 저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입생으로 시작하는 저에게, "두려워 하지 말고 원한다면 무엇이든 시도해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입학 당시에는 제가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은지 지금처럼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새로운 선택이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인 저에게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하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때때로 조금 돌아가기도 하지만, 고민한 시간은 결국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확실한 답을 알려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공학과 **정민재**

한 학기 동안 이론과 실무가 만나는 공학의 재미를 깊이 체감했습니다.
Fe-C 상태도와 조직 관찰 실험을 통해 단순한 이론을 넘어 현실의 기술임을 깨달았습니다. CATIA 모델링과 장학금 기획 등으로 시야를 넓히고 '자기 이해와 커리어 디자인'으로 미래 방향도 다졌습니다.
치열한 학업 속에서도 드라이브와 스타일링으로 나만의 리프레시를 챙기며, 단단하고 주체적인 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된 스스로에게 "실험 결과의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네가 던진 질문과 깨달음을 기록해두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은 이유는 전공 공부와 여러 과제를 이어오면서, 결국 가장 크게 남는 것은 정답 그 자체보다 문제에 접근했던 자신만의 시각과 고민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입학 초기에는 실험 수치나 이론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맞춰내는 것에 집중하기 쉽지만, 지나고 보면 조직을 관찰하며 던졌던 의문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순간들이 자신만의 단단한 자산이 되곤 합니다. 조금 더 일찍 그 기록의 가치를 알았다면 학업과 진로를 찾아가는 여정이 한층 더 깊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B777 항공실습관 숨은 비밀 찾기!

비행기, 얼마나 알고 있나요? 기내 곳곳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OX퀴즈로 풀어보며 쉽고 재미있게 항공 지식을 쌓아보세요.

1. 기내 창문은 완전히 밀폐해 닫을 수 있다.

O X

2. 승무원 좌석의 안전벨트는 일반 승객 좌석과 동일하게 한 개이다.

O X

3. 기내 화장실 문은 외부에서도 열 수 있다.

O X

4. 비상구 문은 누구나 내리고 싶을 때 열 수 있다.

O X

5. 기내 산소마스크는 위급 시 승무원이 수동으로 내려준다.

O X

6. 객실 조명은 랜덤으로 색이 바뀐다.

O X

7. 기내 바닥에는 비상 탈출을 위한 표시가 있다.

O X

8. 비행기 창문 아래쪽의 작은 구멍은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불량이다.

O X

① 정답 : X 비행기 창문은 셰이드를 내려 햇빛을 차단할 수 있지만, 창문 자체를 닫거나 밀폐할 수는 없습니다.
Did you know? 비행기 창문은 안전을 위해 여러 겹의 아크릴 소재로 제작됩니다.

② 정답 : X 승무원 점프시트에는 일반 안전벨트 외에도 몸을 고정하는 숄더 하네스가 함께 있습니다.

③ 정답 : O 응급상황에 대비해 승무원이 외부에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 X 비상구는 비상 탈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개방해야 합니다. 임의로 작동 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⑤ 정답 : X 기내 압력이 크게 낮아져 약 14,000피트 고도에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이 되면 산소마스크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⑥ 정답 : X 조명의 색은 시차 적응, 수면 유도, 기상 유도, 승객 안정감 등을 고려해 비행 상황에 맞게 조절됩니다.

⑦ 정답 : O 복도가 어두워지거나 연기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탈출할 수 있도록 바닥에 비상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⑧ 정답 : X 창문 아래의 작은 구멍은 '블리드 홀(Bleed Hole)'로, 창문 사이의 압력을 조절하고 김서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6 글로벌 창업인사이트캠프

인하 V-LOG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화학생명공학과 임가람입니다.
저희 팀원 이성과 김민영과 함께
도쿄의 스타트업 허브 QWS와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
그리고 대학 탐방까지
함께 해 볼래요?



인하브이로그를
영상으로 즐기세요

첫째 날



인천 공항에서 긴자까지

두근두근 4박 5일의 일본 일정을 시작합니다! 도쿄 도착 후 일본의 스타트업 지원 체계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긴자입니다. 전시된 닛산 자동차에 시승해보았는데, 한국 타이어를 사용했다니 왠지 더 반가웠습니다. 카메라도 보러 왔는데, 정말 비싼 제품들이 많네요. 다양한 기술 제품들을 직접 보니, 기술의 한계가 더 궁금해집니다.

시장조사의 첫걸음

내일부터는 저희가 개발한 '식품 신선도 확인 스티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장지에 붙이기만 하면 식품의 신선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일본 현지인들은 이 스티커 한 장의 적정 가격을 얼마라고 생각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둘째 날

츠키지시장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수산시장 중 하나인 츠키지시장에 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밥이 정말 맛있네요! 초밥집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유명 말차 전문점의 말차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덕분에 피로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에요.

이세탄 백화점

이세탄 백화점으로 이동해 다양한 프리미엄 정육과 수산물 판매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 저희의 신선도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소비자들이 제품 상태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정 후에는 호텔로 돌아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장조사는 쉽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께 저희 아이템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제품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시선이 꽤 다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셋째 날



시부야

오늘은 시부야 QWS를 방문한 뒤, 신주쿠 거리에서 현지인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곳 QWS는 '질문'에서 시작해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이노베이션 허브라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신선도 라벨 역시 이런 공간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며 더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욕이 마구 샘솟네요!

넷째 날



메이지 대학교

메이지대학교에 방문하여 학생 라운지와 취업지원실, 각종 행정시설을 둘러보니 깔끔하고 체계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스마트팜 시설도 매우 잘 갖춰져 있네요. 또 메이지대학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학교 방문 후에는 수산 코너 등 여러 현장을 다시 찾아 시장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다섯째 날



글로벌 도쿄 비즈니스 센터

글로벌도쿄비즈니스센터에서 일본 시장과 도쿄 GBC, KSC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도 직접 발표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일본 진출 사례와 일본 내수시장 특징, 그리고 유망 분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쿄 빅사이트

도쿄 빅사이트 박람회는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 일본 대학생들의 사업 아이디어와 시제품 개발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살펴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여러 기술이 융합된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출발한 스타트업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언젠가 저희 제품도 이런 박람회에 전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나리타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향합니다.
길고도 짧은 일정에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돌아가게 되어 뿌듯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학교에도
감사드려요.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저희의 꿈을 더 크게 키워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제16회 국제학술대회 ICCT 2026

제9회 캡스톤디자인 대학생 경진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미래를 만드는 현장

전공 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설계·제작·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융합형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기계설계공학과 동아리 오토월드의
두 팀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어.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설계를 현실로 만들어낸
이들의 도전 이야기를 들어보자.



AI 자율 수확 메커니즘을 적용한 수직 회전식 홈 스마트팜 시스템

최우수상

하재현, 오승빈, 이도윤,
김서영, 김재현



주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핵심 아이디어는 수직 회전식 카루셀 구조와 완전 무인 자율 수확 시스템입니다. 좁은 실내 공간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직 순환 회전 구조를 적용했으며, 초음파 센서와 AI 기술을 활용해 식물의 성장 상태를 분석하고 수확 시기를 판단합니다. 이후 자동으로 작물을 절단해 수확까지 수행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최근 집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홈파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정용 스마트팜은 생육 상태를 확인하거나 물주기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결국 사람이 직접 수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요. 또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많아 공간 활용도도 낮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기계 설계와 자동화 기술로 해결해 보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께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저희는 기구 설계와 3D CAD 모델링은 비교적 익숙했지만, 센서 신호 처리나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알고리즘 연동과 같은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정익 교수님께서는 초음파 센서 데이터를 보정하는 칼만 필터 코딩부터 생육 데이터 처리, 자동 정렬 제어 프로그램까지 전반적인 알고리즘 설계와 코드 구조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프로젝트를 완성도 높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선만 통과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3D 프린터를 돌리고 체인과 스프라켓 링크를 맞추는 작업을 반복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큰 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드론 배터리 화재 소화 및 비상 착륙 통합 시스템

우수상

권서연, 윤지수, 서동훈
김은석, 김민석



주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드론 비행 중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하고, 이후 기체를 안전하게 착륙시켜 추락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시스템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안전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기체 손상뿐만 아니라 추락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화재 상황에서는 전기 센서나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기에 의존하지 않고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보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압을 활용해 낙하산을 펼쳐 안전하게 착륙하는 방법까지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지도교수님께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실제 시스템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짚어주시고, 아이디어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면 좋을지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공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신 점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 얼떨떨하면서도 정말 기뻤습니다. 동아리원들과 '우리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이 가능할까?',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고민을 거듭했는데, 함께 노력했던 과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더욱 뿌듯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고, 앞으로도 전공 지식을 활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계속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청춘의 열정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푸른 바다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쓰레기들도 숨어 있다.
2026 K다이빙 KUDA 대학생
장학생 강사과정을 통해 역량도 키우고
바다를 지킨 스포츠헬스케어학과의
박민지, 이진원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지: 안녕하세요. 스포츠헬스케어학과 2학년 박민지입니다. 평소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느껴요. 이번 2026 K다이빙 KUDA 대학생 장학생 강사과정과 제주 해양 정화 봉사활동을 통해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진원: 안녕하세요. 스포츠헬스케어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이진원입니다. 현재 학과 부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만큼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편인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헬스케어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와 학과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박: 체육 관련 학과로 진로를 고민하던 중 인하공전 스포츠헬스케어학과의 커리큘럼이 제가 관심 있던 분야를 폭넓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학과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이에요. 선후배, 교수님과 함께 운동하고 소통할 기회가 많고,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라 정말 좋습니다.

이: 저는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교육과정에 매력을 느껴 진학했어요. 무엇보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전문적인 지식까지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선후배 구분 없이 함께 운동하고 교류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 학과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스쿠버다이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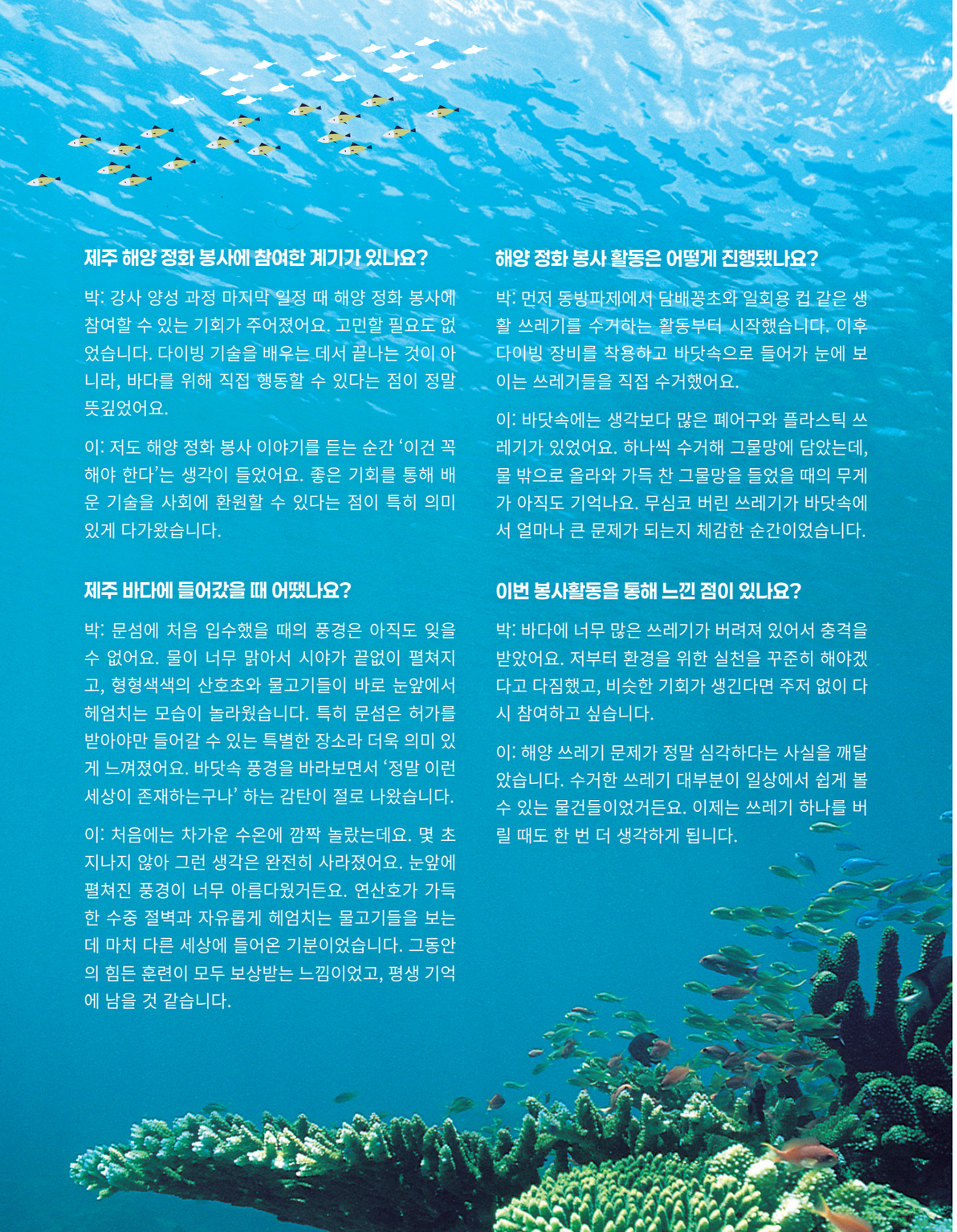
박: 처음 관심을 가진 계기는 학과 학회장을 맡고 있는 동생 때문이었어요. 동생이 지난해 KUDA 대학생 장학생 강사과정에 참여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평소 물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혼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라 더 궁금했고, 직접 배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저도 그 친구의 말이 시작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로망이 있었어요. 물속 깊이 들어가 수면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아래에서 바라보는 상상이었죠. 막연한 꿈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접 그 세계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 새로운 도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스쿠버강사 자격증 취득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들려주세요.

박: 매일 강의 발표를 준비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반복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이었기에 더욱 뿌듯합니다.

이: 가장 힘들었던 건 수영 실력이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내가 정말 강사 과정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동기들이 끊임없이 응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줬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버텨낸 끝에 모두가 함께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제주 해양 정화 봉사에 참여한 계기가 있나요?

박: 강사 양성 과정 마지막 일정 때 해양 정화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이빙 기술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위해 직접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뜻깊었어요.

이: 저도 해양 정화 봉사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건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기회를 통해 배운 기술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제주 바다에 들어갔을 때 어땠나요?

박: 문섬에 처음 입수했을 때의 풍경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물이 너무 맑아서 시야가 끝없이 펼쳐지고,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물고기들이 바로 눈앞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문섬은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바닷속 풍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처음에는 차가운 수온에 깜짝 놀랐는데요.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런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연산호가 가득한 수중 절벽과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는데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훈련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해양 정화 봉사 활동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박: 먼저 동방파제에서 담배꽁초와 일회용 컵 같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을 직접 수거했어요.

이: 바닷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폐어구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었어요. 하나씩 수거해 그물망에 담았는데, 물 밖으로 올라와 가득 찬 그물망을 들었을 때의 무게가 아직도 기억나요.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바닷속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 있나요?

박: 바다에 너무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부터 환경을 위한 실천을 꾸준히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비슷한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 없이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해양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거한 쓰레기 대부분이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이었거든요. 이제는 쓰레기 하나를 버릴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동료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박: 각자 잘하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었어요. 해양 정화 활동을 할 때도 서로의 안전을 계속 확인한 덕분에 모든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섬에서 입수를 준비할 때, 무거운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 바위에 이끼가 많아 미끄러웠거든요. 그때 동기들이 자연스럽게 장비를 잡아주고 발판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챙겼습니다. 강사 과정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라 그런지 그 모습이 더 뭉클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의 팀이 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스포츠헬스케어학과에서의 교육 중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나요?

박: 학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실습과 팀 프로젝트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는데 학과에서 배운 것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이: 전공 수업인 수영 수업과 학과의 스쿠버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수영 수업을 통해 물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다이빙 교육에서는 기본 원리와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었어요. 덕분에 KUDA 장학생 과정에 도전할 수 있었고, 제주해양정화봉사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헬스케어학과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소개해 주세요.

박: 우리 학과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많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나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진로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론을 넘어 직접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포츠헬스케어학과는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는 학과입니다. 선후배와 동기들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이 봉사활동과 자격증 취득,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하공전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박: 대학 생활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니 학교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음껏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요.

이: 저는 힘들었던 순간들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됐어요. 지금의 목표가 어렵고 멀게 느껴질 때, 자신을 믿고, 또 옆에 있는 동기와 선후배들을 믿어보세요.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성장과 평생 기억에 남을 감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전! 재료공학과

반도체부터 미래 신소재까지.
나는 재료공학과와 잘 맞을까?
YES/NO게임으로 알아보자!

START!

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전기차!
'어떤 재료로 만들어질까?' 궁금했던 적이 있다.

NO → GAME OVER



제가 그걸 알아야 할까요?

YES ↓

스마트폰이 더 가벼워지고, 자동차가 더 튼튼해지고, 배터리가 더 오래가는 이유가 **재료 차이**라니, 흥미롭다.

NO → GAME OVER

생각하면 머리 아파. 연구원들이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



YES ↓

화학과 물리에서 배우는 원리들이 **실제 제품**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다.

NO → GAME OVER



YES ↓

나는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실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NO → GAME OVER



귀찮아... 정답만 알려 줘~

YES →



제품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이 재미있다.

YES →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소재, 더 오래가는 배터리, 더 가벼운 자동차처럼 '더 좋은 재료'를 만들어보고 싶다.

NO → GAME OVER



전문가님, 고쳐 주세요! 저는 아무 것도 몰라요.

YES ↑

반도체 제조공정, 전자재료, 신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다.

NO → GAME OVER



첨단산업? 내게는 너무 먼 이름...

YES →

용접기능사, 금속재료산업기사,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처럼 **취업 실무 역량**을 갖추고 싶다.

NO → GAME OVER

자격증은 멋있지만 청춘의 낭만이 먼저야



YES →

졸업 후 **반도체 기업, 첨단소재 기업, 품질관리 분야, 생산기술 분야**에서 전문 기술자로 성장하고 싶다.

NO ↓

나에게 어울리는 다른 전공을 찾아보자!

인하공업전문대학

YES ↑

Congratulation!

재료공학과에서 환영합니다!

당신은 재료공학과와 잘 어울리는 학생입니다!
재료를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반도체·신소재 같은 미래 기술을 배우는 일이
적성에 잘 맞죠. 인하공전 재료공학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을 찍어보세요!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용

INHA NEWS TIMES

인하공전,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청과 항공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협력 추진

2026.7.28.-29.

우리 대학이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산하 직업교육청 대표단과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항공서비스 분야 객실승무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서비스 분야 교육과정 및 콘텐츠 공동개발, 교원·학생 교류,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도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산업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항공산업 육성 정책 및 우르겐치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따른 현지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 동안 B777-200ER 실물 항공기 실습시설, 항공안전훈련실습실 등 현장 중심 교육 인프라를 둘러보고 객실승무원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 설립 경험이 있는 조우석 총장은 “대학이 축적해 온 직업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테크니쿰의 중장기 교육과정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 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항공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직업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국내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해외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인하공전, 인천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와 제물포 관광 활성화 협력

2026.7.6.

우리 대학은 7월 6일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와 함께 인천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인천 제물포구가 지난 7월 1일 출범한 것을 계기로, 개항장거리와 차이나타운으로 대표되는 인천 원도심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사업 발굴·추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마케팅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 운영 ▲지역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관광경영학과 김재호 교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광 기획, 서비스, 공공디자인 등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제물포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하공전, 도쿄서 ‘2026 글로벌 창업 인사이트 캠프’ 운영

2026.8.24.-28.

우리 대학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도쿄에서 ‘2026 글로벌 창업 인사이트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는 교내 창업동아리 및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학생 6팀 22명이 참가했으며, 학생성공처장이 인솔해 현장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앵커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으며, 단순 견학을 넘어 학생들이 각자의 창업아이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미션을 수행하고 일본의 창업 생태계와 시장·기술·대학 혁신사례를 조사해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참가팀은 도쿄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일본 시장 진출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봤고, SHIBUYA QWS와 메이지대학교를 방문해 일본 대학의 혁신 활동을 확인했다. 또한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Innovation Japan 2026’을 참관해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사례를 살펴봤으며, 팀별로 도쿄 주요 상권을 조사해 현지 소비자 특성과 디자인, UX, 운영방식 등을 분석했다.

캠프 종료 후 참가팀은 결과보고서와 창업아이템 개선 전·후 비교표를 작성해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창업동아리 및 교내외 경진대회 등 후속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성공처장은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창업캠프, 경진대회, 글로벌 프로그램을 연계해 현장 중심의 창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하공전 사업통합관리팀 이정현 선생, ‘AI 활용 행정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2026.8.26.

우리 대학 사업통합관리팀 이정현 선생이 8월 26일 ‘AI 활용 행정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수행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는 혁신성, 효과성, 확산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정현 선생은 ‘AI 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3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고도화’를 주제로 참가했다. 해당 시스템은 대학발전계획 KPI와 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AI를 활용한 성과 분석과 부진 지표 조기 감지, 보고서 생성, 위원회 안건 도출 및 환류 관리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외부 개발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성과관리 담당자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웹 기반 성과관리 플랫폼을 직접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대학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성과관리 체계를 구현했다.

조우석 총장은 “대학 구성원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직접 활용해 실질적인 행정혁신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수상”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을 대학 전 부서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성형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대학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내 성과관리 분야에도 적용해 대학 IR(Institutional Research) 체계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 대학 경영과 행정 DX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창의적 전공동아리 I.F.B.B., WNGP 의왕 대회 2개 부문 입상

2026.8.29.





우리 대학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창의적 전공동아리 ‘I.F.B.B.’가 8월 29일 루터대학교에서 열린 ‘WNGP 의왕(WORLD NATURAL GRAND PRIX) 보디빌딩 경진대회’에 참가해 2개 부문에서 입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류민혁 학생은 클래식피지크 에이지 부문과 보디빌딩 노비스 부문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으며, 보디빌딩 –70kg 체급에서도 4위에 올랐다.

I.F.B.B. 동아리 학생들은 대회 출전뿐 아니라 훈련과 컨디션 관리, 백스테이지 지원 등 준비 전 과정에 함께했다. 박시은·황혜린 학생은 컨디셔닝 코치로 선수의 신체 상태와 경기 일정에 맞춘 관리를 맡았고, 노효빈·김민형·문선호 학생은 백스테이지 코치로 워밍업과 펌핑 등 경기 직전 준비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운동처방과 트레이닝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며 경기력 관리 역량을 키웠다.

동아리를 지도한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이민규 교수는 “이번 입상은 선수와 동아리 학생들이 협력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 스포츠헬스케어학과는 대회 출전과 선수 컨디셔닝, 현장 실습 등 학생 주도형 비교과 활동을 확대해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인하공업전문대학, P-TECH 성과평가 5년 연속 A등급 달성

2026.9.8.

우리 대학 일학습병행(P-TECH)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2025년 일학습병행(P-TECH)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우리 대학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 사업은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모델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무와 학습을 병행하며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신규·우량 학습기업 참여율, ▲외부평가 합격률, ▲방문 모니터링 실시율, ▲학습근로자 목표달성률 등 전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며 A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25년 외부평가에서 63%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일부 종목은 전국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정태성 센터장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36개 특성화고교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량과 다양한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 왔다. 앞으로도 사업 확대와 청년 취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최근 특성화고 교장 초청 간담회 및 도제학교 업무협약을 통해 P-TECH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까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 36개 고교와의 협업을 지속하며 입학 설명회, 홍보 확대, 충원 체계 개선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에는 정기적인 교류와 의견 수렴, 홍보 채널 다각화 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인하공전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Best CHAMP 최우수기관 선정

2026.9.11.

우리 대학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Best of CHAMP 공동훈련센터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선정으로 우리 대학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대학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미래차 기술, 전동화, AI·DX 등 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총 1,69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해 연간 목표 1,160명 대비 146%를 달성했다. 18개 교육과정을 총 52회 운영했으며, 교육과정 수는 전년 대비 28%, 운영 횟수는 73% 증가했다.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AI·DX 분야 교육에는 630명이 참여해 전년 대비 112% 증가했으며, 교육생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62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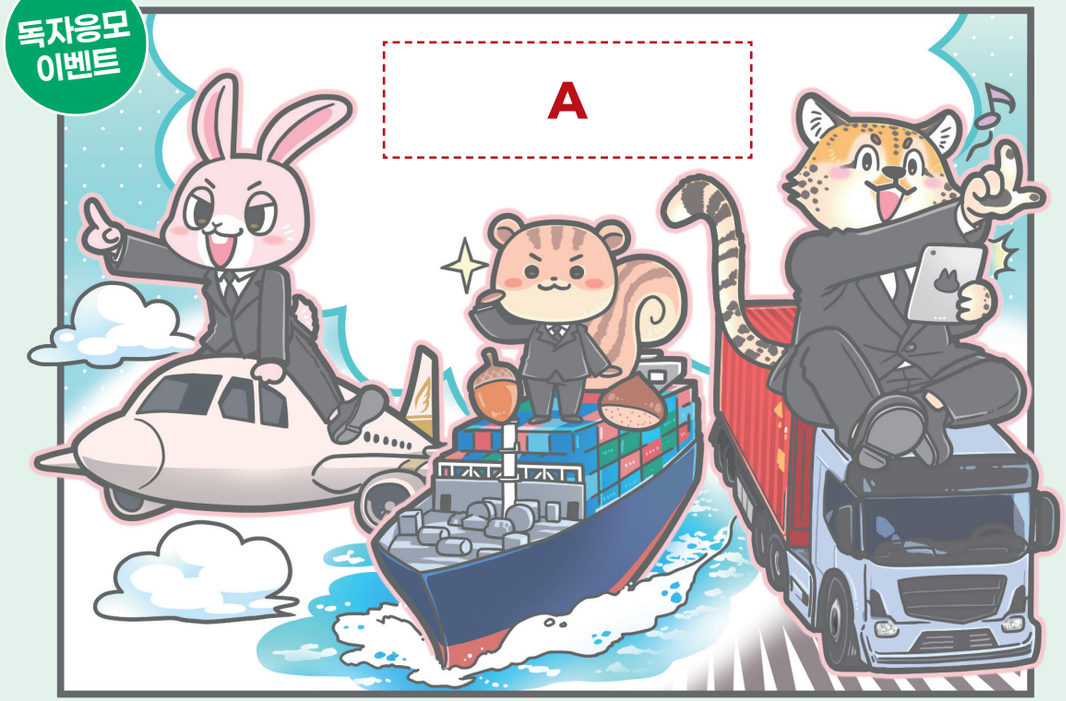
센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훈련 2,030명과 산업전환 세미나 1,958명 등 누적 3,988명의 교육 실적을 기록했다. 교육생 만족도는 4.6점, 참여기업 만족도는 4.9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종우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장은 “2년 연속 Best CHAMP 최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대학이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뿐 아니라 AI·DX로 빠르게 확장되는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앞으로 기존 미래자동차·전동화 교육과 함께 RPA·AI 기초, AI Agent, AX 및 Physical AI 등 AI 기반 산업전환 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독자응모 이벤트



같은 장면, 다른 상황!?
재미있는 대사를 넣어 이야기를 완성해보세요.

대사 하나로 상황이 바뀐다?
당신의 재치있는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A칸에 들어갈 대사를 아래 QR코드로 응모해주세요.
선정되신 2분께는 상품권(각 5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 당선자 두분, 축하합니다!



혹시, 인하공전 출신이세요?

인하공전 동문들과 모임을 갖고 계신가요?
잘 됐네요! 커피는 저희가 살게요!

'인하공업전문대학'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하고 모임을 소개해 주세요.
채택되신 모임에는 소정의 모임비를 지급합니다.

"친구야!! 이번 주말, 오랜만에 만날까?"

카카오플러스 친구추가!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발전기금 안내

발전기금 모금 문의
: 032-870-2626
: fund@inhatc.ac.kr

인하공업전문대학은 1958년 설립 후 최상의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국 최고의 전문대학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다양성과 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모아주신 사랑에 최고의 교육 경험과 최상의 교육 과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앞으로도 꿈을 현실로 바꾸는 대학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
INHA TECHNICAL COLLEGE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공업전문대학 TEL. (032) 870-2114